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적 삶에서 본 행복방정식

# 청빈과 정신적 풍요가 환경위기 해결책

### 다른사람들의 불행위에 쌓는 나의 행복

요즘 그야말로 힐링(치유 Healing)이 대세인 듯하다. 여기저기 힐링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다.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시대라는 뜻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 '멘토'라는 말도 자주 쓰인다. 요즘 처럼 청년들을 향해 멘토들의 조언이 넘쳐난 적이 있었던가? 이 멘토들의 조언도 결국 위로와 격려이다. 위로와 격려, 치유가 필요로하는 시대는 결국 OECD국가중 자살을 1위, 20대 사망자중 자살의 비중이 1위인 기가막힌 사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다. 이 시대 희생자들의 죽임의 행진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죽임의 사회가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이제 살림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오늘날 경쟁과 이익, 승리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은 누군가의 죽임과 상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렇듯 오늘날은 나의 행복은 다른사람들의 불행위에 쌓아놓은 것이다. 그들을 밟고 올라가 이



원유를 시추하기 위한 기계들. 무분별한 시추로 북극해는 녹아내리고 있으며, 자원 사용의 불균형을 야기 시켰다.

### 현대인 행복도 욕구 따른 소비에 있어 현대사회는 광고 통해 욕구 확장 시켜 환경적위기... 대량생산, 대량폐기가 원인

룩된 것이다. 그러나 한게임에서 이익을 본 사람도 결국 더 많은 다른 게임에서 승리보다는 패배의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더욱이 개인들에게는 행복의 기억보다 상처의 기억이 더 오래 더 깊이 각인된다.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도 결국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는 불행해야하는지에 의문을 품고, '왜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 생태적 삶과 행복방정식

$$\text{행복도} = \frac{\text{소유}}{\text{욕구}} = \frac{\text{물(物)}}{\text{심(心)}}$$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은 다음과 같은 행복 방정식을 쓴 적이 있었다. 현대인들의 행복도(幸福度)는 욕구에 따른 소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광고를 통해 분포(욕구)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결핍감을 자극한다.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구매욕을 자극하여 더 많은 소비를 충동질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불안감을 조장한다. 그래서 결국 많은 나라들은 구미나 일본과 같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사회를 부러워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식 생활양식(American life style)을 지고지순의 목표로 삼고 있다. 1960~1970년대 우리들도 미국인들이 한없이 부러웠고 그들처럼 되기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인식은 세계적으로 1980년대까지 별문제가 없는 세계의 근본 원리이자 정의로 보였다.

그러나 1990년 들어 동구와 소련이 붕괴하고, 고르바초프는 전 지구적인 위기인 환경과 전쟁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국

과의 경쟁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991년 브라질에서 있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는 일순간 '위기'라는 말이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그 위기의 본질은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은 소비양식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있다고 보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이미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9년 현재 남북극의 빙산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된 것은 인간의 화석연료의 대량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지구 65억 인구 중에 미국은 3억을 조금 넘는 5% 정도의 인구를 차지하면서 화석연료는 32%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잘사는 나라 20%의 인구가 전 세계의 화석연료의 82%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위기는 바로 이들이 소비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만약 미국과 같은 생활양식이 정당한 것이라면 80%의 가난한 나라도 마땅히 그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성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13억의 중국과 10억의 인도, 더 많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나마나 위기는 더욱 가

속화되고 지구는 곧 결판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같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가난한 나라 사람과 골고루 나누어야 할 자원을 소수의 잘사는 나라 사람들이 빼앗아 쓰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자원까지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더 깊이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그 가난 덕분에 우리가 현재의 소비적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진 소비 국가들의 발전이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고 미래 세대의 것을 빼앗아 소비한 덕이며 경제풍요를 누린다는 말은 그만큼 큰 죄업을 짓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

다시 행복방정식으로 돌아가자. 결국 오늘의 산업사회는 욕구의 무한 추구, 무한대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소비할 상품 생산은 한계가 있다. 결국 키워진(분포) 욕구에 맞추어 소비도 높아져야 하는데 사용할 자연 자원의 한계와 정화 능력의 한계로 인해 소비재 생산(분자)에는 한계에 다다른다. 그것이 결국 환경 제약이라는 위기로 인류는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 토대는 '자원은 무한하다'는 전제이다. 이것은 인류의 큰 착각이고 패

착이다. 실제의 사실은 우리가 쓸 '자원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주하게 대책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에게 행복은 없는 것인가? 여기서 기시네 다꾸로 교수는 그의 책 <문명론>에서, 해법은 분포인 욕구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행복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환경위기 시대에는 물질(物)의 소비와 소유의 과소여부가 행복의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결국 마음(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문제인 시대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확대된 욕구와 욕망을 당연시하며 물질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환경위기 시대는 소비와 소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며 '물질적으로는 청빈하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사는 삶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환경위기의 근본 메시지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에겐 경건과 같은 책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불교경제학을 언급하는 이유도, 제레미 레프킨이나 카프라 등의 학자들이 소박한 삶, 자발적 가난의 삶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메시지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작게 사는 가치란 무엇일까. 우선 큰것을 지향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수행과 수양의 정신

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가능한 구매하지 않고, 직접 먹을 것을 직접 재배하거나 살 집도 가능한 직접 지어보려는 노력도 소중하다. 그래서 결국 작게 사는 삶(Small), 천천히 사는 삶(Slow), 그리고 나누는 삶(Share)을 사는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경쟁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목표를 추구하되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과 관계를 소중히하는 삶이다.

### 농업을 기반으로 분권화된 자립사회

생태적 삶은 이와 같이 개인의 깨달음에 기반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수행과 영성 등의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풍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변화와 사회변화는 둘로 나눌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적 사회는 지금과 같은 거대 국민국가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폐기가 지역에서

### 해수면 상승은 화석 연료 소비가 원인 선진국 20% 전세계 화석연료 82%소비 다꾸로 교수... "욕구 줄여야 행복" 주장

순환하는 풀뿌리 분권화된 사회를 지향한다. 그리고 농업이 기본이 되어야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삶을 살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약육강식의 경쟁법칙이 아니라 거래와 교환과정으로 호혜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지역통화 등도 그 좋은 예들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거주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아파트와 아파트를 이동하는 떠돌이의 삶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불박이로 사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야 이웃과 공동체적 관계를 맺게되고 지역의 자연을 책임지며, 환경과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불박이의 지역공동체속에서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복지, 생태복지가 가능하다.

제3세계의 가난한나라를 지원하는 방식도 한국과 미국처럼 살게하려는 개발지원이 되게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기나라의 상품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평등하게 나눠야 할 자원을 독식해온 우리들이 스스로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립적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도 거대한 국민국가가 되는 것이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분권, 자치와 풀뿌리에 기반한 통일이여야만 비로소 미래지향적 문명전환에 큰 의미를 갖는 통일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위기는 죽임의 문화를 뛰어넘어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을 강제받고 있는 일종의 사인(Signature) 유정길(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 불교용품 동업자 모집



삼재등



삼재등

사람은 누구나 삼재라는 세가지 악운을 피해갈 순 없는 실정입니다.이 크나큰 악운을 사전에 알고 비방으로 비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부처님전에 삼재 등을 밝히고 그 정성으로 삼재에 대한 모든 악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승은 50여년 동안 옛 문헌을 토대로 연구 검토하여 삼재등을 창작하고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위 삼재등 사업에 뜻을 같이 할 동업자 분을 선착순으로 몇 분 모시고자 하오니 이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여 수 많은 중생들의 악운을 함께 막읍시다. 연락주시면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묘 류석준 합창



부적총만법책은 중국과 한국에서 원본을 복원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책은 정보으로 영구히 보존 될 책임입니다.

**부적총만법 판매 개시**  
 농협 063-12-129185. 우체국 013102-02-480071  
 예금주 : 유오상

질성출판사

주소 : 서울 강동구 둔촌동 448-4번지 201호  
 전화 : 02)2233-2050 / 010-4805-5332 / 010-8808-1797

## 목각단청운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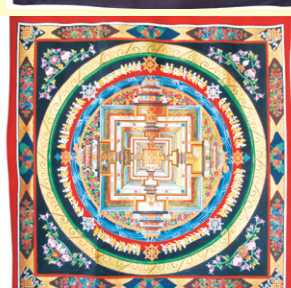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티벳 만다라 그림 (크기별 3종류)



\* 티벳 스님들이 직접 그린 만다라



16나한상 (높이 30cm)



원목 영가 사진을 위해



원목 부처님 좌대 (2자 반 기준)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